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 일시 |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306호)

이번에도 어렵겠네,,,



대출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자가 부담스러워요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주관



민병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PROGRAM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

●● 진행순서(안)

시간		순서	비고
~15:00		사전 등록	-
15:00~15:15	15분	개회 및 인사말	사회 : 배장원 민병덕의원실 선임비서관
15:15~15:20	5분	장내정리 및 사진촬영	
15:20~16:10	50분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각 8분)	좌장 :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16:10~16:50	40분	발제 및 토론(각 10분)	-
16:50~17:00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CONTENTS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

●● 축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3

●● 인사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5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7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9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11

●● 현장의 목소리

• PC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13
----------------------------	----

• 노래방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	19
----------------------------	----

• 숙박업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25
-------------------------	----

• 제과

우원석 제과협회 수석부회장	31
----------------------	----

• 메이크업

김현아 메이크업미용사회 이사	37
-----------------------	----

CONTENTS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

■ 발제

[좌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 발제 1 :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정책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1

• 발제 2 : 하반기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 발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55

■ 토론

• 토론 1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69

• 토론 2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73

축사



박 광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민병덕·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과 발제,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입니다. IMF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무려 5차례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전체 성장률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다중채무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빛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광 온**

축사



오 세 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대출 상환만기 압박에 따른 대안 마련’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주관해주신 민병덕 의원님과 이동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 매우 든든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과, 감당하기 힘든 대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취약차주, 특히 현재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폭넓은 금융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삼중고를 겪는 동안 대출이 50% 이상 증가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총액은 1034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3년 3월말 기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신은 85조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8.2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지원대상 여신이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과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 중 일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중 상환유예는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환유예가 이대로 9월 말 예정대로 종료되어 상황이 본격화될 경우, 많은 소상공인이 한계로 내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형태가 아니고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환유예를 연장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대출 연체액은 올해 1분기 기준 6조3000억원으로, 2022년 4분기 4조1천억원 대비 53.7% 늘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자영업자 은행 대출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7% 증가했고, 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률은 18.5%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의 소상공인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에서 대출 중 하나만 상환에 문제가 발생해도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금융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상환유예를 연장하는 동시에 일부에 그치는 지원대상을 전체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등으로 폭넓게 확대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의 90%까지 탕감하고 있지만, 신용정보 등록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대출이 명백한 경우, 신용정보 등록에 예외를 두는 대출원금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논의와 제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임박한 상환유예 종료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 세 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1,0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19년 말(685조원)보다 무려 349조원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기침체의 복합위기를 대출로 버텼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소상공인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민병덕 의원님과 이동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은 비단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실위험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상환유예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다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무려 407조원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79개)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6.35%로 평균 연체율(5.33%)보다 높고, 상승폭도 1.18%p로 다른 대출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은 전체 대출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일부라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기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금리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를 연장해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자조차 갚기 힘든 한계 소상공인은 과감한 채무조정과 사업전환으로 재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신용페널티 우려로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과감히 낮추어야 합니다.

더구나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원상복구와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폐업조차 어려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업할 경우 일시상환을 유예하고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9월말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환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벗어나기도 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대출 상환유예 대상자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 진행되는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소상공인의 대출이 정책자금보다는 민간자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소상공인 대출액은 1,000조가 넘어가고 있으며, 73%가 만기가

6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액의 상당금액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대면서비스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불황 상황은 이들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직접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이들이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과 발제를 맡아주신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금융위 김태훈 거시금융팀장님, 중기부 강신천 기업금융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객석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정 태 호

인사말



민 병 덕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별 경기 상황과 소상공인 대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환영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별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지만, 힘겨웠던 코로나19 기간 이후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 회복은 요원합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많은 소상공인은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은 고금리로 고생하고 계시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피해를 감수했던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소상공인 부실채권에 대한 국가 매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를 위해 여러 차례 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고 오늘 발제를
담당해 주신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위원님과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민 병 덕**



이 동 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주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진 빛 국가가 책임져라”

대선 때 우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했을 과제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경감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문제는 집행율이 고작 9%에 불과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내세우며 시늉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보다는 국가부채를 줄인다면서 나라곳간의 문을 걸어 잠가 버리니까 개인과 자영업자의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곳의 경제분야 싱크탱크,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문제를 한국경제 리스크의 뇌관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문제를 방치하고만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 개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들 모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이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입니다. 건실한 중산층이었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경제침체기를 거치며 신용도가 추락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면서 빈곤층으로 계층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중산층 이탈을 막는 대책은 선제적이며 과감한 채무경감 조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과감하면서도 실천적인 채무경감 대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님,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민주연구원 연구자와 정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채무부담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동 주**



현장의 목소리 청취

PC

이 준 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소상공인 대출부담관련 PC방업 업종현황 및 정책 요청사항

□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PC방 업종이 받은 데미지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9년과 현재 매출 비교 시 매출 회복 규모는 80% 수준
 - 코로나 기간 불법 게임텔이 성행하게 되고 개인 유저들이 PC를 구매하면서 PC방에 오지 않는 환경 조성.
 - 코로나 2년의 시간이 여가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꿔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
 - PC방의 시설 업그레이드 주기는 대략 3년이며 가정집은 5년 정도 구매PC를 쓴다고 추산했을 때 PC방으로 수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복 기간이 2~3년 정도는 더 필요
-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 직원 인건비보다 생활비를 가져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태반인 상황
 - 월 2천만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인건비가 1천만원 정도 되며 인터넷도 전용 회선이 매월 80만원, 여기에 전기세도 인상이 되어 부담이 큼
 - 현재 가게의 기본 계약전력이 50Kwh로 기본료가 42만원 정도. 영업제한 당시 한전에 영업을 못하니 기본료를 면제를 요구했었는데 외면당함.
 - PC방은 24시간 업종이라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냉·난방기를 사용해야해서 전기료 상승에 대한 지원 정책 절실
 -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알바생이 직장인과 비슷하게 돈을 벌음. 이러다 보니 알바들은 대충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서 한 달에 알바가 스무명씩 바뀌기도 함.
 - 주휴수당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계산을 하면 그 계산하는 것도 소상공인에게는 과중한 업무임. 또한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단기 알바를 쓰게 됨.

□ 대출관련 현황 및 문제점

- PC업종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종이라 코로나 기간 대출규모가 크게 상승
 - 개인적으로 2019년 리모델링 비용만 7억 정도 투자했는데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지며 대출 규모가 5억 정도로 늘어남
 - PC방은 환기시설이 중요해 환기시설을 구비하는 비용만 1500만원~2000만원 정도 비용 투자
 - PC업종의 업그레이드 시기가 곧 돌아올 예정이며 매출이 70~80% 회복이 되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매장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임. 그러면 또 1~2억 정도 추가적인 빚을 질 수 밖에 없음
- 대출관련 정부·은행의 발표내용과 현실의 괴리감이 큼
 - 소상공인 정부대출도 저렴한 금리에 몇억 이상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비용을 전부 포함한 한도임)
 - 코로나 때 정부에서 최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중은행에 가면 기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거절 됨.
 - 공단 정책자금 중 청년 고용연계 자금을 받았는데 자료에는 7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실제 받은 대출금은 2,500만원
 - 이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직원들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4대 보험도 소상공인은 부담이 엄청난 부분
 - 상환유예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 대출은 조족지혈의 문제이며 정말 큰 문제는 그 외의 신용·일반 대출임
 - 대출 비율은 정부대출이 2, 그 외 대출이 8정도임.
 - 은행이 매출을 확인하고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음. 근데 코로나로 매출이 없으니 자본이 많은 사람 외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음.
 - 현재 대출이율이 6.5%, 6.7%, 8.5% 정도인데 모두 원리금 상환 대출이라 올해 말부터 상환이 들어온다고 하면 혼자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하는 상황

-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담보가 없으신 사장님들은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신용점수가 낮아져서 불가능함.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도 받고있는 상황

○ 폐업을 못하는 이유는 폐업을 해버리면 대출 상황 요구가 바로 들어오며, 임차 건물도 원상 회복하는데 비용 발생

- 보증금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크고 대출금 상황이 바로 들어와 어려움 가중

□ 요청사항

○ 대선 전 거의 모든 대선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20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 손실보상금은 피해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
-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 영업 제한이 되었고 그 기간 수익 원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납득 가능할 정도의 손실보상 필요

○ 초저금리 및 신용상 문제만 없으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해야 함

-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신용점수가 낮아졌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 쪽으로 내몰려 부담 금리 상승
- 저금리로 대출자금 이율도 처음에는 1.5%였다가 금리가 올라 부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 이율을 전환해 주면 도움

○ 정책자금대출 이외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10년·20년 길게 잡아 장기상환을 하도록 정책지원 필요

○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정책 필요

- 폐업을 하면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월세, PC업종의 경우 통신요금, 위약금까지 내야함. 또한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도 많이 소요.

-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애 주기별로 고안 된 금융 프로그램이 있어함
 - 창업시기, 성숙기, 쇠퇴기, 폐업 등 주기별 맞춤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다 일반화 되어있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정책을 정리하려고 함

- 정책자금 대출이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균열이 깨지면 다른 대출금까지 막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현장의 목소리 청취

노래방

이 승 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 대출부담관련 노래방업 업종현황 및 정책 요청사항

□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

- 노래방 업주의 95%가 여성이고, 연령대로 보면 50대~60대 중반이 대부분이라 코로나 이후 업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 작년에는 노래연습장 월평균 매출은 500만원 정도였고, 가게 월세와 고정비용을 빼면 월 200~250만원 가져갈 수 있었음
 - 올해는 월평균 매출이 333만원으로 매출액이 1/3이 감소, 고정비(월세나 저작권료, 신곡비, 전기요금 등) 200~250만원을 빼면 문 닫고 집에 있는게 나은 상황
 - Ex) 코로나 이후 태진·금영 등 사업자 등이 기계값을 올림(코로나 이전 30만원대 → 70~80만원으로 2배이상 인상)
 - 코로나 시국 때는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이 있어 연명이라도 가능했으나 코로나도 끝나고 정부 지원금도 끊긴 상황에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있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로 느껴짐
- 경기도 불황이지만 코로나가 2년 정도 지속되니 손님들이 저녁 10시가 넘으면 집으로 귀가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음
 - 노래연습장은 10시 이후가 영업 피크 시간이라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액 회복이 현재로는 어려워 보임
- 노래방 신규 개업 비용은 1억2천~1억5천정도 필요한데 코로나 이후 감소한 매출 회복이 어려우니 코로나 이전대비 25%정도 업장이 줄어든 상황
 - * 안산의 경우 700개에서 450개로 감소(35%↓)

□ 대출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대출이 8천만원까지 된다고 이야기 듣고 은행권에 가보면 기대출이 많아서 안되거나 필요한 돈이 2~3천만원 인데 1천만원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
 - 지금 정책은 거치기간만 늘어났을뿐 원금·이자를 동시 상환해야 해서 오히려 전체 금액(이자 증가)은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듬.
- 꼭 필요한 환경개선을 위해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후 장사를 통해 빚을 갚으려 하지만 대출 서류를 넣다 보면 망했을 때 은행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 선(담보가 확실한 금액)에서만 대출을 제공
 - 대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져도 시설 투자금, 정부 대출 등 지원이 나오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이 떨어지면서 신용이 떨어지면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짐.
 - 결국 대출을 못 받아서 경쟁력이 약화된 곳은 망하는 악순환 반복됨
 - 신용이 좋아서 당장 대출이 필요 없는 곳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배고프고 힘든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
- 정부정책자금의 금리도 처음에는 1.5%대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3% 후반대로 두 배 이상 오른 상태
 - 다른 상품에 비하면 싸지만 초기에는 1.5%로 이야기 하다 1년마다 계속 금리가 오르고 정책자금이라고 생각하니 금리가 낮다고 느껴지지 않음
 - 덧붙여 정부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까지 내야하니 그 비용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큼
- 정부 정책에서 저리 대출이나 코로나 지원금 등의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 생각 됨.
 -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는 이유로 600만원, 300만원 똑같이 정부 지원금을 받음.
 -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도 정부 지원금을 똑같이 받은 부분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금리가 6%대 되는 것 같은데 내 돈 갖다 넣어놓고 거기서 갖다가 쓸 것 같으면 해약해서 쓰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 하지만 보험도 해약을 하면 일정 부분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관 대출을 이용중
- 계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위해서는 대출금도 상환해야하고 인테리어도 원상 복구를 해야 함.
 - 대출 상환금과 복구비용(약 1,500만원~2,000만원) 부담으로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음.
 - 폐업을 하게되면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됨.

□ 요청사항

- 대출 만기 연장을 장기적으로(10년~20년) 해주거나,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 급하게 대출을 받아간 소상공인들은 원금을 탕감해 주는 정책필요
 - 대출금 상환 기간을 짧끔 연장해서 파산을 막겠다는 정책은 미봉책
 - 원금을 장기 분할로 상환하는 방안이 여러 단체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책
 - 정부에서 500만원 선지급 받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후 확정된 보상금액에서 삭감되는 형식으로 지원금 받은게 있었음. 노래방은 2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노래방처럼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원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탕감을 시켜주었으면 함.
- 대출금(원금 또는 이자) 탕감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청년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청년 목돈 만들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에게도 확대하여 목돈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코로나 집합제한 시기에는 업종마다 차등적으로 영업시간을 적용하는 걸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음

-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만 놓고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종마다의 특색을 검토하고 정책에 적용 필요
 - 정부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봐줬으면 함
-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든지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든지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숙박업

김 진 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소상공인 대출부담관련 숙박업 업종현황 및 정책 요청사항

□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

- 숙박업은 소상공인 중 대출 규모가 제일 크며, 코로나 이전 사드로 중국 요커들 관광이 끊기며 이미 10%가 폐업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
- 코로나를 거치며 위생·환기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인건비 등도 상승 하다보니 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많음
- 하지만 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는 농어촌 민박, 산림청은 산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관리 기능이 걸쳐 있어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다**보니 업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 대출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기업대출이나 담보대출은 각 은행권이 연동이 되어 금방 정보 확인이 가능하는데 소상공인 대출은 더 까다롭다고 느껴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신청만 하면 **국세청과 연계되어**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간편하게 지급 진행** 되었음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메일로 서류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은 서류 만들려 다니다가 끝나버림
 - 서류를 출력하려면 인증서도 필요하고 소진공에서도 필요서류 띄어야 하고, 세무서에 가서 4~5개를 또 띄어야 함
 - 나이든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서류절차 간편화 필요**

- 우리나라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절차 간소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대출자금 외 개인대출 만기 일정이 도래하면 정부대출 금액을 추가 대출자금으로 합산해 연장을 거부하거나 금리가 상승 됨
 - 기존 대출을 재계약 하려면 추가 대출로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며 금리를 올려버림(5%대 → 6%대)
 - 기존 대출이 후순위로 밀리고 정책자금 대출액이 선순위가 되면서 대출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것임
 - 정부대출로 2~3만원 절약해도 개인대출 금리가 높아지며 오히려 100~200만원 대출금을 더 내게 됨
 - 결국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은행이 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은 빚만 늘어남
 - 이런 구조라면 정책자금 대출을 안 받는게 이익이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
- 정책 자금 추가 대출 받은걸로 인해서 일반 대출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책자금을 바로 갚아 버리겠다고 해도 바로는 금리 인하가 안되고 나중에 반영된다는 점도 문제
- 위와 같은 상황이다보니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3차에 걸쳐 해줬는데 1·2차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았지만 3차 때는 6%도 받지 않음
 - 개인적으로도 1차때 3천만원, 이후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버팀. 3차 대출은 빚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받지 않고 직원을 내보냄
- 금융감독원에서는 1조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추진 중이며, 워크아웃 진행 시 주 채권 은행과 여타 채권은행 간 협조가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정책도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음.
- 소진공 직접 대출에 대해서는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공문 등도 온게 없어서 홍보 문제가 있는거 같음.
 - 저금리로 직접대출 정책을 해준다고 하면 보다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함

□ 요청사항

- 코로나로 인해 받은 정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금(정부 또는 개인대출) 대출 재계약 시 은행이 정부 대출금 정보를 토대로 기존 대출 자금에 대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자금이라는 타이틀을 정부에서 붙이면 그만큼의 혜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정부정책자금 대출 발생 시 기존 대출 자금에 영향이 있다면 사전에 그 점에 대해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정책자금으로 인해 기존 은행대출에 변동이 생기는걸 인지했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자금 대출을 안 받았을 것임.
 - 정부 정책자금 대출과 개인 일반대출은 별도 분리해서 관리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
- 대출금 부담 외 다른 비용 절감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함
 -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기계를 1등급으로 교환하면 4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 지원 기준이 업소당 최대 160만원 한정이면 숙박업에서는 객실이 30개면 1~2대만 지원 대상임.
 - 전기요금 체계에 소상공인 업종을 따로 분류해 별도의 요금체계 신설도 정부에서는 고려하였으면 함
- 현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버티기 위해서는 대출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 다른 문제들도 종합적인 고려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제과

우 원 석 제과협회 수석부회장



소상공인 대출부담관련 제과업 업종현황 및 정책 요청사항

□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

- 제과는 영업 금지업종은 아니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었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카페형으로 대형화 추세
 - 베이커리 카페들이 대형으로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동네 빵집들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짐.
 - 대형 카페는 부지가 크기 때문에 보통 몇십억씩 투자가 필요하고 50~60%이상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급격히 증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부는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가 상승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형 카페를 오픈한 후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음.
- 또한 코로나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빵을 만드는 재료는 거의 90% 이상 수입.
 - 제과 업종의 경우 재료비(대표적으로 밀가루, 설탕, 마가린 등)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판매가 안되다 보니 계속 손해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업체가 많아짐.
 - 개인 빵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의 빵을 만들려면 고용이 필요한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로 인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은 구인이 어려워짐
 - 구인을 하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급을 줘야해 인건비 부담이 더 높아짐
 - 결국 폐업을 하거나 은행에 다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림

□ 대출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은 가게를 조그맣게 하는 자영업자들인데 신용이 좋으면 돈을 아쉽게 빌릴 이유가 없음. 신용이 떨어져 대출을 하는데 신용도로 돈을 빌려주니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이 일어나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없음
 - 대출 필요서류를 여러 가지 떼어 은행에 가도 다양한 사유로 원하는 비용은 빌리지 못하고 서류만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다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는 발급받기도 쉽지 않고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확인하여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음
 - 소진공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업종 간담회를 진행 했는데 당시에도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옴
- 대출이 있더라도 가게를 운영하다 힘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은행권이나 신용보증 재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규정으로 딱 대출을 끊어버리고 있음.
- 기존 대출금도 갑작스러운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짐
 - 정부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청해도 은행에서 내려주지 않음
 - 원금 상환은 둘째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상공인에게는 부담.
 -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소상공인은 사람을 못구해서 힘들고, 재료비 올라가서 힘들고, 거기에 은행 금리도 오르면 결국은 직원을 줄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
 - 코로나 때는 대출 이자만 내도 됐는데 지금은 원리금 상환도 해야하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짐. 금리 부분만이라도 낮아지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쓰는 사람은 또 쓰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유: 정책자금 대출 홍보부족 또는 신용미달 등의 이유

- 가게를 폐업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6개월 안에 갚으라고 은행에서 통보해** 어려움이 많음
- 새출발 기금의 경우 **신용정보가 2년동안 조회**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신청하기 꺼려하는 소상공인이 많음**

□ 요청사항

-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신용이 낮아도 원하는 금액대출을 해주어야 함
 - 이번 코로나때 신생가게는 금방 무너졌지만 20년~30년 된 가게는 노하우가 쌓여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음. 하지만 물가·인건비·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건없는 대출이 절실히 필요**
 - 정부에서는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도도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음.**
- 제과업종은 오븐이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많이 필요.** 그래서 과거 부동산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길 건의**를 한 바가 있음.
 - 소상공인 대출 시 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임.
- 최근 버티다 결국 가게를 폐업하는 제과업종 지인들이 많은데 소상공인이 평생의 업을 그만둘 때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임.
 - **소상공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탕감도 필요하고 대출 상환 등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폐업 지원금도 한 평당 13만원**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 주변을 보면 최대로 받은 사람은 없고, **많이 받아야 평균적으로 100만원 언저리 금액을** 받음. 폐업 지원금도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음.**

- 업계 현황으로 그 동안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이 있어 제과업종이 그나마보호받고 있었는데 **내년 8월까지가 기한임.**
 - 제과업체 보호를 위해 기한이 연장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마지막으로 올해 5월부터 빵집 근처에 있는 외식업종에서 빵을 100원에 사서 본인 가게에서 120원에 팔아도 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동네 빵집은 판로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서 좋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으로 성심당·이성당·나폴레옹·리치몬드 등 이미 **유명한 곳의 빵만 사가지고 팔 수 있고 양극화로 동네 빵집은 초토화 될 확률이 더 높음**
-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이 극복 할 수 있음



현장의 목소리 청취

메이크업

김 현 아 메이크업미용사회 이사



소상공인 대출부담관련 메이크업 업종현황 및 정책 요청사항

□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

-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객 성향이 여러명이 붙어 있는 것보다 프라이빗하게 나만 신경 쓰는 곳을 선호하여 업종이 1인화 되어가고 있음
- 메이크업은 코로나 전보다 점포가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며 경쟁 심화
 - 1인샵이 늘어나며 점포는 늘어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와중에 전체적인 서비스 단가는 낮아져 이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
 - 업종 특성상 강남구나 메인 상권에 있어야 되다 보니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음
- 기술이라는 것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1인화 되다보니 정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남
 - 일본도 10년 전에만 해도 한국보다 우수했는데 1인화가 되다보니 현재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뒤쳐졌음.
 - 향후 한국도 일본과 같이 기술 발전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
-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채용을 하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취업 희망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짐.
 -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채용하면 할 일이 없어 단순 업무 위주로 일하며 1~2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워낙 높다보니 채용을 할 수 없게 됨

□ 대출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로 인한 온전한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업계 소상공인들 다수가 신용도 하락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 은행 대출 서류도 규모가 큰 곳은 직원이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 쪽은 1인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 준비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짐

□ 요청사항

- 대출에 있어서 청년을 고용 하거나,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 우대정책으로 저금리 대출 기회를 주는 발전 방향 필요
 - 아울러 청년 도약계좌처럼 소상공인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있다면 경영 어려움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대출 서류를 제출할 때도 우리 나라가 전자 정보쪽 기술이 뛰어나니 서류 간소화를 위한 정보 통합을 정부가 추진하여 현재 필요서류가 10개라면 3~4개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함
- 업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함
- 정부에서 유류세를 계속 인하해서 부담을 줄여주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전기세 인하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



발제 1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정책

정 상 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상공인 대출 부담완화 정책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

1. 소상공인 대출 현황

-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순조롭게 연착륙 하고 있다고 판단
 - 대출금 상환, 대환대출 등을 통해서 '22.9월말 대비 '23.6월말 기준 대출금 약 24조원, 차주수 8만명이 감소하여 대출금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
 - 만기연장: 전체 지원액 중 93%(71.0조/76.2조)에 해당하는 만기연장 금액은 대출 만기가 '25년 9월까지이며, 정상적으로 이자 납부
 - 원금 상환유예: 약 4.1조원에 해당하는 원금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대상 차주의 99.0%(10,263명/10,366명)가 상환계획 수립 완료
 - 이자 상환유예: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는 이자 상환유예 차주(800명, 대출액 1.1조원)는 불가피할 경우 금융사 연착륙지원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표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22.9월 지원대상		'23.3월 지원대상		'23.6월 지원대상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① 만기연장	90.6	41.3	78.8(92%)	37.5	71.0(93%)	34.0
② 상환유예 ¹⁾	9.4	2.4	6.5(8%)	1.6	5.2(7%)	1.1
①원금상환유예 ²⁾	7.4	2.2	5.2(6%)	1.5	4.1(5.5%)	1.0
②이자상환유예 ³⁾	2.1	0.19	1.4(2%)	0.11	1.1(1.5%)	0.08
합계	100.1	43.4	85.3	38.8	76.2	35.1

주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 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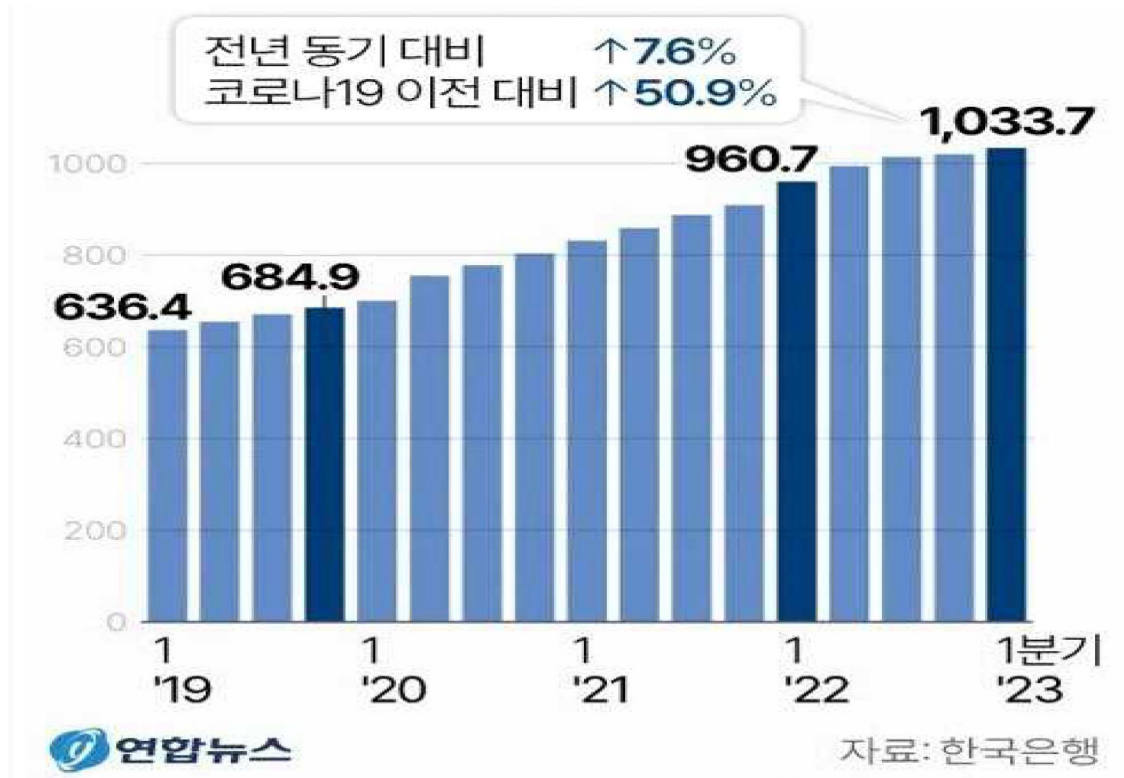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상공인 대출액은 1,033조원으로, 영세한 규모의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2023년 1/4분기 기준 소상공인 대출 차주수는 313만명, 대출액은 1,033조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9% 상승한 금액임
- 먼저 [그림 1]의 소상공인 대출잔액과 <표 2>의 대출구성 비중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영세한 규모의 대면서비스업 종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차주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차주가 비은행권에서 높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영업 지속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 비중은 2019년 대비 0.2%p 증가한 10.1%로 31만 6천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은행권 대출은 계속 감소하는 대신 비은행권 대출비중은 '19년말 32.1% 대비 7.3%p 증가한 39.4%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취약차주 증가,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비은행권 대출비중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용도 하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소상공인 업종을 크게 대면, 비대면 그리고 부동산 세 개 형태로 구분할 경우 우선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
- 대면과 비대면 업종에서 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업종은 대출비중이 '19년 20.2%에서 21.5%로 1.3%p 정도 증가
-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영세규모 위주의 대면서비스업에서 대출비중이 '19년 39.9%에서 4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경기불황 상황에서는 이들 업종의 차주들의 대출 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주의가 필요

<그림 1> 소상공인 대출잔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연합뉴스, 2023.06.21.

<표 2> 소상공인 대출구성 비중

단위: %

구성		2019	2021	2023. 1/4
차주특성	비취약	90.1	91.0	89.9
	취약	9.9	9.0	10.1
금융업권	은행	67.9	64.5	60.6
	비은행	32.1	35.5	39.4
업종	대면	39.9	44.3	46.1
	비대면	20.2	21.3	21.5
	부동산	39.9	34.4	32.4

주 1) 차주특성별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에서 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

2) 업종에서 대면업종은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로 구성되며, 비대면업종은 대면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6)

○ (평가)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

- 2023년 1/4분기말 기준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대출 1,033조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특히,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이내인 소상공인 대출 비중 73.2%, 취약차주의 연체율 위험률은 '22년 14.4%에서 '23년 말에는 1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3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2024년 1/4분기말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출 연체가능 차주 또한 31만명 정도의 취약차주 가운데 6만명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정부 대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매출회복 및 증대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불황, 고물가, 고금리,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매출회복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 예) PC방: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시기 불법 게임텔 성행과 개인들의 개인 PC 구입 증가로 생활패턴이 바뀐에 따라 이는 PC방 출입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노래방: 코로나를 거치면서 회식을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에 자주 찾던 노래방 출입감소

- 특히, 코로나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

-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피해액의 10% 정도 수준(실제 체감금액은 월세도 안되는 수준)이며, 국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지난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지만 해당 약속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족

-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함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진행
(PC방의 경우 환기시설 개선에 1,500~2,000만원 정도의 비용 투자, 노래방의 경우 주로 지하에 많이 있어 습기 등으로 인한 소파(400~500만원) 및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
-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던지 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든지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책 필요

- 결과적으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 폐업 또는 빚으로 계속 연명하는 상황

- 고정비와 관련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 영업제한 당시 한전에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기본료 면제를 요청했지만 한전에서 외면
- 임대료 관련 착한 임대인 제도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찾아보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임
- PC방은 계속된 폐업으로 인해 현재 5,000개 정도 남은 걸로 추산되며, 노래방은 코로나 이후 25% 정도 폐업
-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상환,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원상복구(노래방의 경우 1,500~2,000만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 정부의 정책자금 홍보부족으로 일부 소상공인만 이용하는 상황

- 정부가 홍보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기존 대출을 이유로 홍보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소상공인 정부대출도 저렴한 금리에 몇 억 이상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코로나 때 정부에서 28조~30조를 풀어 시중은행과 협력해 최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중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신용점수 920에 은행대출을 신청했지만 기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

- 아울러 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도 쉽지 않고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

-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까지 내야하니 그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큼

- 또한 정책자금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 자금이용에 대해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

○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고용연계 자금처럼 특정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

- 청년 고용연계 자금의 경우 4대 보험가입 등이 부담으로 작용

- 대출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연령 소상공인의 경우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정책자금 등의 경우 보통 전체 대출한도가 정해져서 해당 한도 소진 시 대출이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신청만 하면 국세청과 연계되어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간편하게 지급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서 메일로 서류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서류를 출력하려면 인증서도 필요하고 소진공에서도 필요서류 띄어야 하고, 세무서에 가서 4~5개를 또 띄어야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은 서류 만들려 다니다가 끝나버림

- 주거채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규정 등으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정부 정책자금으로 인한 신용도가 은행권 대출의 패널티로 작용

- 코로나시기 정부 정책자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여 은행권으로까지 연동

-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신용도 하락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지만 상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도가 바로 회복되지 않은 문제 발생

- 정책자금으로 인해 기존 은행대출에 변동이 생기는걸 인지했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자금 대출을 안 받았을 것임.
- 1금융권 대출은 연체가 되면 신용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대비해 은행권 대출을 메꾸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대출해 갚기도 함

-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즉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상승된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시 이자율 상승 문제

-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인상된 금리로 만기가 적용되어 부담이 되는 상황

- 어쩔 수 없이 버티기 위해서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1.5%였다가 그 금리가 현재는 올라 그게 또 부담이 됨
- 기존 대출을 재계약 하려면 추가 대출로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며 금리를 올려버림(5%대 → 6%대)
- 3천만원을 3.25%로 대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갚을 때 약 4.8%~5%로 올라서 갚았음

○ 과도한 금리의 보험약관 대출도 부담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발생

- 은행권 대출이 힘들 경우 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약관 대출을 이용하지만 보험약관 대출 자체가 본인의 보험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음에도 높은 대출금리가 책정

-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담보가 없으신 사장님들은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신용점수가 낮아져서 불가능함.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약관 대출까지도 받고있는 상황으로 평균 이율은 8%정도로 예상됨
- 보험계약 대출이 3천만원 있는데 그 이율이 9.7% 정도
-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6%대 되는 것 같은데 내 돈 갖다 넣어놓고 거기서 갖다가 쓸 것 같으면 해약해서 그 돈 갖다가 쓰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근데 보험도 해약을 하면 일정 부분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관 대출을 이용중

○ 폐업을 해야 하지만 대출금 일시상환 등을 이유로 하지 못하는 상황

- 빠른 폐업을 통해서 고정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폐업할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 원상복구 비용, 위약금 등이 발생하여 폐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 가중
- 즉, 폐업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 발생

3.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제안

○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

-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 법안 조속한 통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2023.3.6.), 에너지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2023.7.19.): 임대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고정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 면제 검토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창업 중소기업 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제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9조의 3)에 따라 해당 정책을 일시적이라도 소상공인 까지 확대
- 은행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연장 시 기존 금리수준 유지, 금리우대 정책 시행 등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
- 청년고용연계대출은 고용 유지여부에 따라 최대 0.4%까지 금리우대를 시행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세가맹점주의 최초 약정금리 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여 금융비용 절감 지원
- 은행연합회가 올해 2월 발표한 10조원 이상 규모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금리우대 정책 시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경기불황 상황에서 매출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화폐 발행지원 의무화 및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안 검토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이익 공유형 장기 분할납부 시행

- 일차적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익 공유형 장기 분할납부 시행
 - 이익 공유형 대출은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금리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이자로 수취하고, 영업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유형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일정기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이익 공유형 대출과 별도로 코로나시기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장기 분할상환 납부 검토
 - 보증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만기를 50년까지 부여하는 등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고, 최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10~20년 정도로 장기 분할상환 검토

○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간 신용도 분리 정책 마련

- 정책자금을 받을 당시 신용도로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 분리

- 정책자금은 민간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저금리, 낮은 신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장점이 사라지면 정책자금을 받을 유인이 사라지며 민간자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책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도 없음
- 특히, 코로나시기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부분 정책자금은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완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자금으로, 해당 자금이 신용도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해당 자금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

참고. 정부는 '21년 5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 결정

시행사례. 기업은행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 대상 금리상승 완화 조치 시행 및 코로나 피해기업 비재무평가 시 최근 매출 회복세, 업종특성 및 영업경쟁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비재무평점 상한 특례 운용

- (평가) 수혜 기업수가 너무 적음, 소상공인 포함여부가 불명확
- 해당 자료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부에서 신용도 불이익 방지 제안에 대해서 마지 못해 시행한 생색내기용 조치

단위 : 건수

연도	조치내용	수혜기업 수
'21년~'23.7월	가산금리조정 (금리상승 완화 조치)	1,015
	비재무평점 상한 특례	2,608

자료: 민병덕 의원실

○ 보험약관 대출 재정비

-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본인의 보험금 내에서 대출을 함에 따라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약관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적절한 대출금리 수준 유지 필요

○ 대출자 중심으로 대출규정 정비

- 스크래핑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최소화
 - 스크래핑 서비스는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디딤돌 대출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관련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회 및 단체,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홍보 강화
- 업종특성에 맞는 대출상품 개발 및 지원
 - 소상공인 업종마다 다양한 특색이 존재함에 따라 현재 전체 업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 정책을 업종 맞춤형 정책으로 검토
- 저신용자, 소액자금 대출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 및 지원
 - 신용도 하락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 및 단기 소액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확대

-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100만원의 대출금리는 15.9% 적용
- 고가장비 등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동산 담보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 보유 고가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출 가능상품 개발 필요
- 예: 제빵업은 사용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협회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음

○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발생 최소화**

- 소상공인이 폐업해야 할 경우 대출금 등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유예를 통해 적시폐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2023.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여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 정부지원 폐업지원금에 원상복구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폐업지원 현실화
-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 관련 점포철거비의 경우 3.3㎡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원상복구*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0~2,000만원 정도 필요해 폐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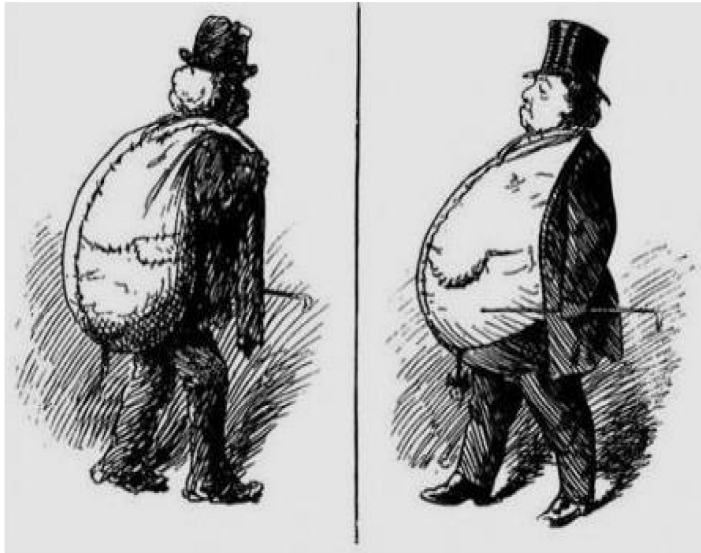
발제 2

하반기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 발표

차 남 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금융을 바라며



약자 금융 VS 강자 금융

2023.09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KFM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소상공인연합회

I. 소상공인 현황

기업 규모별, 종사자, 현황

▼ 전체 기업체 수 중 95.0% 차지

구분	전체	소상공인 A	소기업 B	중기업 C	중소기업 C*(A+B+C)	대기업 D
기업수(개)	7,723,867 (100%)	7,335,397 (95.0%)	266,760 (3.5%)	111,738 (1.4%)	7,713,895 (99.9%)	9,972 (0.1%)
종사자수(명)	22,865,491 (100%)	10,461,890 (45.8%)	3,983,951 (17.4%)	4,046,773 (17.7%)	18,492,614 (80.9%)	4,372,877 (19.1%)

*자료 :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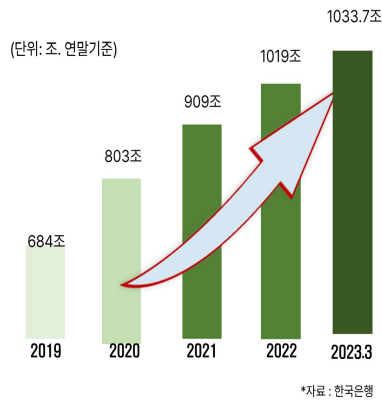
KFME 소상공인연합회

I.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 대출 추이

코로나19 이전은 684.9조, 3년여 간 소상공인 대출 규모(1033.7조)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실 및 체질 악화 우려가 확대**

자영업자 대출 추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9.12	2020.12	2021.12	2022.12	2023.3
사업자대출	448.9	520.6	589.5	671.1	711.1
가계대출	236.1	282.9	309.6	348.8	322.6
합계(조)	684.9	803.5	909.2	1,019	1033.7

348.8조 원 (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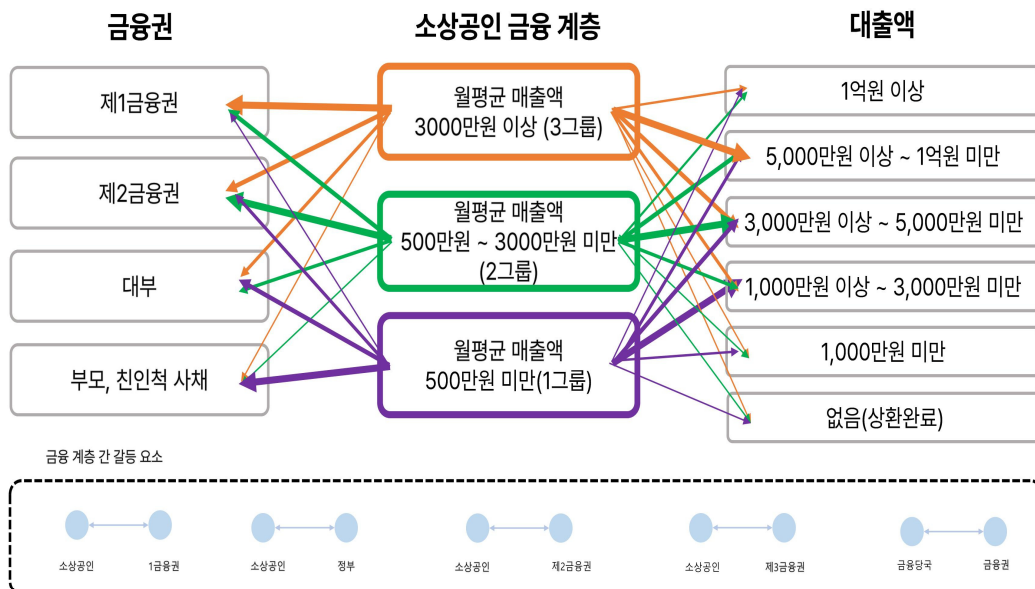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출 형태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그룹별 대출 형태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구분	1그룹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미만)	2그룹 (월평균 매출액 500만 원 ~ 3000만원 미만)	3그룹 (3000만원 이상)
1금융	32.1% (194명)	47.0% (284명)	20.9% (126명)
2금융	29.9% (89명)	54.0% (161명)	16.1% (48명)
3금융	35.5% (11명)	48.4% (14명)	16.1%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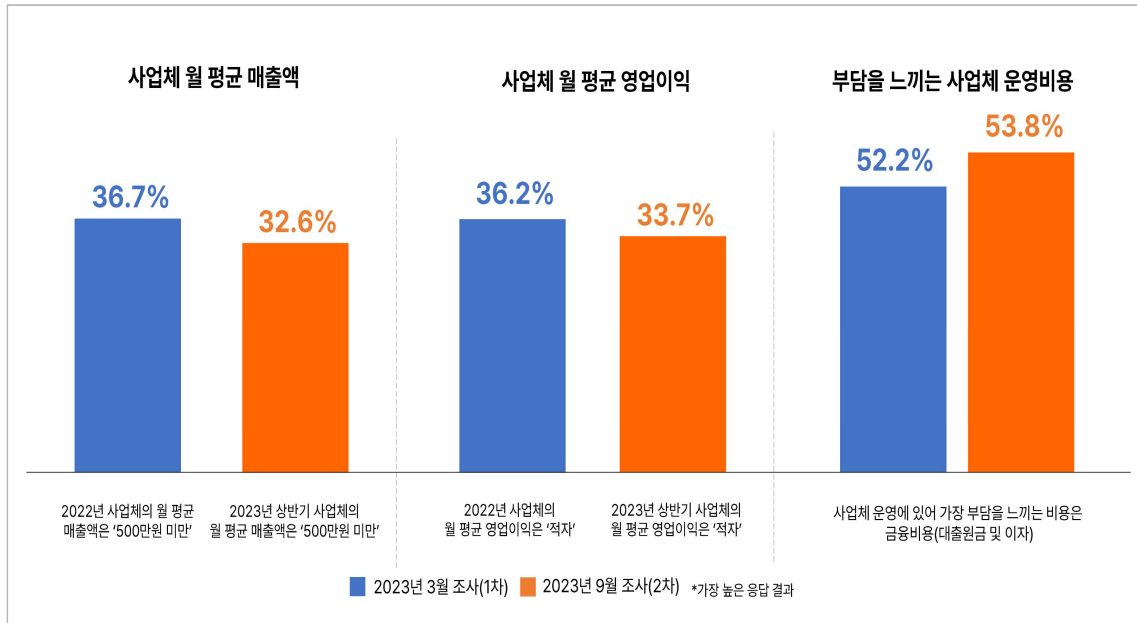
구분	1그룹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미만)	2그룹 (월평균 매출액 500 만원 ~ 3000만원 미만)	3그룹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8% (31명)	4.6% (22명)	1.8% (3명)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6.2% (104명)	27.5% (132명)	20.7% (35명)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6.1% (75명)	30.2% (145명)	23.1% (39명)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8.1% (52명)	27.9% (134명)	34.3% (58명)
1억원 이상	7.0% (20명)	8.8% (42명)	18.3% (31명)
없음(상환완료)	1.7% (5명)	1.0% (5명)	1.8% (3명)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매출 & 영업이익 & 운영부담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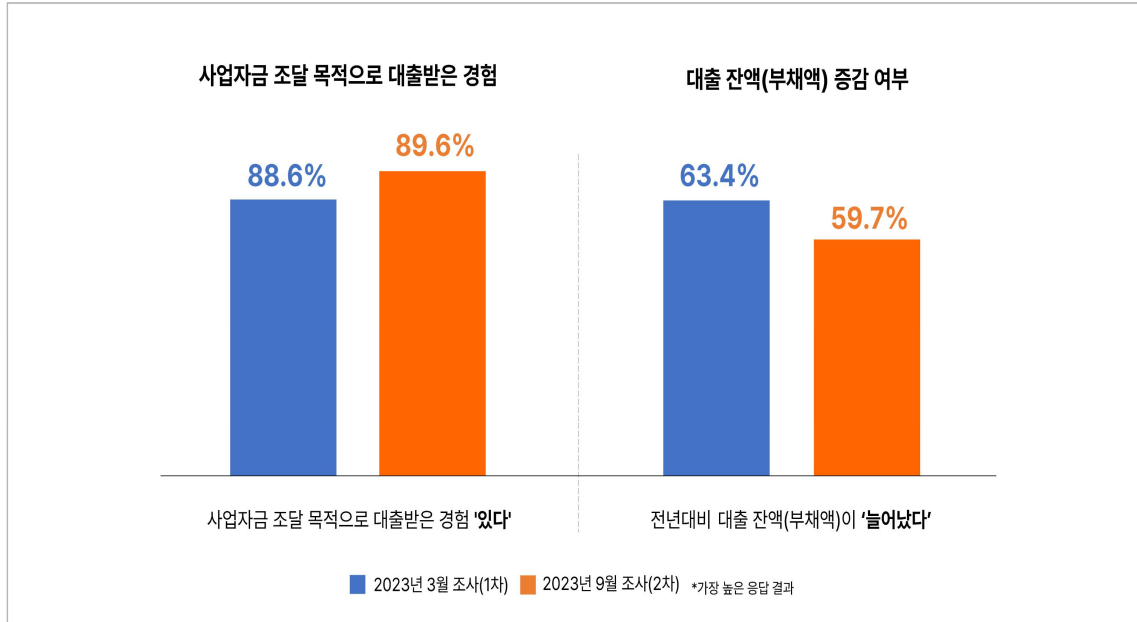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출경험비율 & 대출증감율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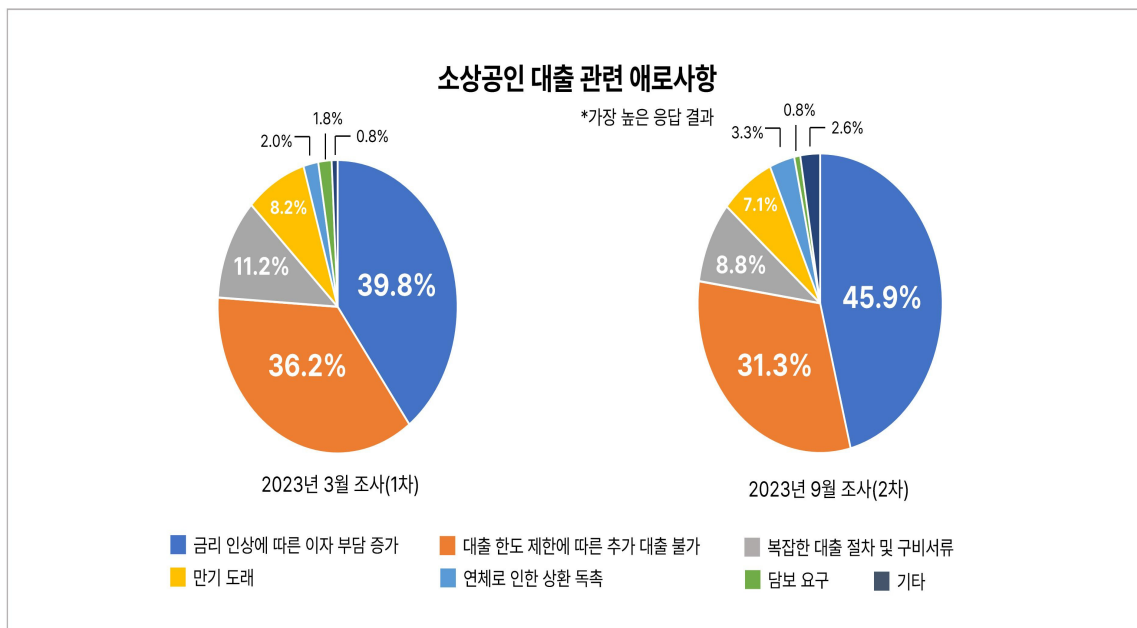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출 애로 사항은 ?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KFME 소상공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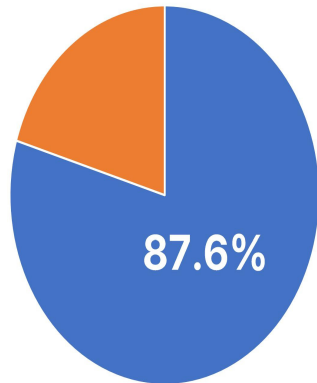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정도는 ?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가장 높은 응답 결과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힘든 수준'이 87.6%

KFME 소상공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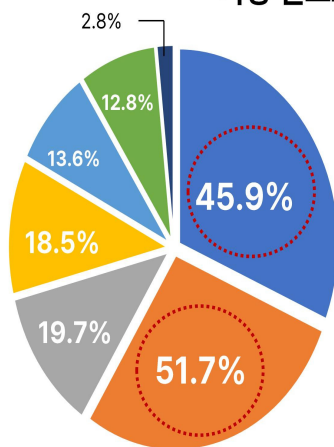
II.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은 ?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연구(2023)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가장 높은 응답 결과 순(중복응답)



-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절감 ✓
- 대출원금 장기분할 납부시행 ✓
-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 대출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소상공인 전용은행 설립
-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간 신용도 분리정책
- 기타

KFME 소상공인연합회

III. 소상공인 금융환경



III. 소상공인 금융환경

끝나지 않은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러-우크라이나 전쟁 원부자재 공급망 불안	에너지 비용 상승 공공요금 인상
소비위축 장기화	소비취향 변화 매출감소 확대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소상공인 금융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소상공인 대출 받는 곳	갈등 및 문제점
제 1금융권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출 허들(신용점수, 담보, 서류 등 구비요건) • 높은 대출 금리, 소상공인 전용 금융 프로그램 제한적 •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 임직원 성과급 잔치
제 2금융권 (저축은행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비 높은 금리 • 수신잔액 감소 • 연체율 상승 / 대출에 따른 금융안전망 붕괴 위기
제 3금융권 (대부&사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당 할 수 없는 이자비용 • 상환 불능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

IV.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소상공인 업종별 금융 현황 관련 FGI 진행 결과 (2023년)

구분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PC방		숙박업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매출금액(월기준)	4,500만원	3,200만원	1,500만원	1,300만원	3,5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2,700만원	2600만원	1660만원
영업이익(월 기준)	900만원	480만원	800만원	400~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944만원	-200만원
대출금액	없음	5,000만원	없음	9,000만원 (정책대출)	없음	2,000만원 (정책대출) 3,000만원 (카드론)	2,000만원 (일반대출)	2,000만원 (일반대출) 1,000만원 (정책대출)	없음	없음
지출 금액 (월기준)	총액	약3,600만원	약2,720만원	약700만원	약28,000만원	약14,000만원	약1,500만원	약2,100만원	약1,650만원	약1,860만원
	임대료 (판타지포인)	620만원	650만원	180만원	18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없음
	원자재비	1,440만원	1,120만원	신곡비 : 100만원	신곡비 : 100만원	1,400만원	600~700만원	계원비: 600~700만원 상품매입비: 100만원	계원비: 600~700만원 상품매입비(음식): 300~400만원	비품매입비: 800만원 세탁비: 800만원
	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	100만원	20~30만원 X	30~40만원 X	120만원	156만원	100만원 X	150만원 X	90만원 120만원
	인건비 (4인분포인)	1,000만원	700만원 (정규직1명감소)	4~5만원	4~5만원	13~14만원	17~18만원	6~7만원	15만원	90만원
	기타잡비	통신비, 세스코, 캡스, 장수기, 인터넷, 전화, 화재보험 등 : 220만원	통신비, 세스코, 캡스, 장수기, 인터넷, 전화, 화재보험 등 : 220만원	통신비, 포스비, 화재보험 등 잡비 : 150만원	통신비, 포스비, 화재보험 등 잡비 : 150만원		수리 및 부품비 : 100만원 정수기 : 4만원	수리및부품비: 100만원 장수기/냉장고/세탁기/커피머신 세스코 방한제 인터넷선 초음파세척기 등: 60만원	광고비 및 수수료(아플자, 여기어때): 400만원 통신비 : 36만원	광고비 및 수수료(아플자, 여기어때): 400만원 통신비 : 36만원

IV.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소상공인 대출관련 보도

이데일리

[단독] 빚 못갚는 치킨집 사장님 급증...9000억 대신 갚았다

[소상공인 대출보호막 위청]①전국 17개 지역신보 대위변제율도 3.44%...금융위기때보다 0.44%p 높아
"지역신보 재원확충해 자영업자 보증금급 안정성 높여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 지적도"



노희준 기자

지역구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자금(지역신보)의 보증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을

12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보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7월말 기준 9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총액(507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7월말 기준 9037억원.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총액(507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

IV.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소상공인 대출관련 보도



취약 자영업자 연체위험률 18.5%...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낸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2023.06.21 11:26

올 1분기말 대출잔액 1033조7000억
코로나19 전보다 50.9% 늘어난 규모
자영업자, 원리금상환부담 등 리스크 잠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땐 '부실폭탄'

올 1분기말 대출잔액 1033조7000억
코로나19 전보다 50.9% 늘어난 규모 자영업자, 원리금상환부담
등 리스크 잠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땐 '부실폭탄'

KFME 소상공인연합회

IV.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소상공인 대출관련 보도

매일경제

“장사해봐야 남는 게 없어”...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역대급

채종원 기자 jjong0922@mk.co.kr
입력 : 2023-06-27 07:10:55 수정 : 2023-06-



[사진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연체율이 8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규모도 사상
최대치여서 연체액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연체율이 8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규모도 사상 최대치여서 연체액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온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KFME 소상공인연합회

IV.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소상공인 대출관련 보도

maeil 매일일보 PREMIUM

자영업자대출 70% 다중채무...금융지원 종료 땐 부실사태 불가피

이정표 기자 | 승인 2023.06.26 15:04 | 댓글 0

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1분기 말 1천33조
0.25%p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
침작된다. 반대로 0.25%p 낮아지면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자
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점도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역대 최대.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4만원 느는 것으로 추산.**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2.4%(17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사이 70.6%에서 71.3%로 커졌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4만원 느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 역시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취약 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며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라고

KFME 소상공인연합회

V. 소상공인 금융 건의사항

<금융접근성 강화>



카페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2월, 3월 3차에 걸쳐 진행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의 경우 각각 4일, 13분, 14분만에 마감됐습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형평성 확보>

미용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매월 빠듯하지만 아끼고 아껴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득세 감면, 대출이자 감면,
추가 자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십시오"



KFME 소상공인연합회

V. 소상공인 금융 건의사항

<정책보완_대환대출프로그램 확대>

슈퍼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업영위를 위해 사업자대출 외에도 가게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높은 금리로 힘이 듭니다. 대환대출 대상 채무에 대표자 명의의 가게신용대출도 포함해주시요”

<정책보완_새출발기금 개선>

PC방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코로나를 겪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가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정보 등록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채무가 입증되면 신용 패널티를 완화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책보완_만기연장·상환유예 확대>

노래방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상환유예가 종료되어 당장 다음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기백만원의 추가지출을 어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추가로 받은 대출도 내년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제도를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해주시요.”



KFME 소상공인연합회

V. 소상공인 금융 건의사항

<지속성 확보_소액대출>

꽃집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매출저하로 생활비가 부족해 긴급생계비대출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19%로 높아 이자부담이 크고, 간헐적으로 시행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해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주십시오”



<지속성 확보_행복통장>

제과점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상공인으로 빠듯하게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목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청년통장처럼 소상공인 전용 매칭상품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KFME 소상공인연합회

우산처럼 모두를 위한 상생 금융을 꿈꾸며



소상공인 희망, 담아봅니다.



토론

김 태 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토론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토론

강 신 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토론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